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ACN 특별보고서

ACN · 가톨릭평화신문 공동 기획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예금주명: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즈코리아

레/바/논 중동의 그리스도인

“네, 중동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십자가의 길

“저는 시리아 사람인데 아주 힘겨운 여정을 뚫고
레바논에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The Story of Majd

마즈드의 이야기

다르위시 대주교의 천사들

사나와 레이첼

23고... 바스만 가족과 함께

“네, 중동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ACN 한국지부와 가톨릭평화신문은 지난해 중동 지역의 현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레바논을 찾았습니다.

사실 ACN이 중동의 그리스도인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동에 정말 신자가 많을까?”라며 궁금해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요람이 바로 중동입니다. 이슬람교가 생기기 전부터 그리스도들은 중동에서 살아왔습니다. 현재 여러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수백년 동안 이슬람교도와 평화롭게 공존한 역사가 있기에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1세기에 예루살렘, 안티오키아, 다마스쿠스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중동의 원주민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레바논 맨발의 가르멜회 관구장인 레이몬드 아브도 신부가 말합니다. 일부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랍어를 씁니다. “레바논 가톨릭교회에는 **마로니트 가톨릭, 칼데아 가톨릭, 멜키프 가톨릭, 콥트 가톨릭, 아르메니아 가톨릭, 시리아 가톨릭**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시리아 교회, 동방 정교회, 복음주의 성공회도 있지요.” 7세기에 유입되어 중동을 장악한 이슬람교도들은 그리스도인과 다른 종교 신자를

‘딤미’(Dhimmi)로 규정했습니다. 딤미는 선교 활동과 군이나 정계로의 진출이 금지되지만 법적으로 생명과 재산 등의 보장을 받은 비무슬림 국민을 뜻합니다.

1915년 중동 지역(**터키,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인구의 20%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922년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자 그리스도인은 아랍 세계에서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사고로 서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부흥기를 일구는 데 일조하며 정치·문화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진주의 이슬람 단체가 새로 부상하여 전통적인 이슬람 국가를 주창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수가 급감했습니다.

반면 레바논에는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며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합니다. 레바논 헌법이 공공질서를 해하지 않는 한 모든 종교의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은 1943년 국민협약을 맺어 1932년 인구조사를 기초로 권력을 분배해 국회 의석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계로 나누었습니다. 주요 공직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마로니트 가톨릭, 국회 의장은 시아파 이슬람, 총리는 수니파 이슬람에서 선출됩니다.

그런데 현재 레바논의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레바논 국민이 440만 명인데 비해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출신 난민이 150만 명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많은 난민을 한번에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비율로 치면 인구 5천만의 한국이 170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한 셈입니다.

레이몬드 신부는 **“레바논 교회는 중동에 남아서 복음의 가치를 증언하며 지역 사회와 가난한 이들을 여러 방식으로 섬깁니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레바논의 이슬람교도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소수의 극단주의자들만 그리스도인을 쫓아내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신자들도 그리스도인이 사라지면 중동 지역의 모습과 성격이 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중동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맨발의 가르멜회 레이몬드 아브도 신부와 요하네스 클라우스 ACN 한국지부장

다니엘의 십자가의 길



맨발의 가르멜회 수도원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28세)이며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내며 밝게 웃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시리아 사람인데, 아주 힘겨운 여정을 뚫고 레바논에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다니엘은 알레포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극단주의 수니파 이슬람교도로 형제만 16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6살부터 기도를 해야 했고 이슬람 법을 어기거나 단식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았습니다. 어린 다니엘은 알라신이 무서웠습니다. 그는 신을 사랑하기보다 두려워 했습니다. 수없이 억압받고 자란 다니엘은 자신의 부모와 종교를 미워했습니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제 인생이 싫었습니다. 제게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신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을 무렵 좌절하고 실망한 이들의 수호성인인 성 리타가 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녀가 누군지 몰랐지만,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내가 찾고 있던 하느님, 그분이 너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믿고 견뎌라. 모든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잠에서 깬 다니엘은 성당에 가보라고 자신을 떠미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후 여러 곳을 찾아가 미사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성당에 갈 때마다 안정감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모임 때문에 성당에 자주 가는 것을 정부 측 안전요원 두 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복장만 봐도 그가 이슬람교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부모를 찾아가 아들이 성당에 다닌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집에 돌아오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발로 차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방망이 같은 걸로 맞았다고 합니다. 10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요.”** 이 일을 계기로 그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다니엘은 아르메니아 가톨릭교회의 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가족들을 피해 수도 다마스쿠스에 정착했습니다. 15살 소년은 다마스쿠스의 거리에서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해 다마스쿠스에 있는 마로니트 가톨릭교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꿈에 나타난 성 리타의 성상을 만났습니다. 길거리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못한 다니엘은 성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30분간 기도하고 얼굴을 들어보니 누군가 성 리타의 손에 100 시리아 파운드(약 2천 원)를 놓고 간 것이 다니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신자 중 한 명이 두고 간 것이겠지만 그는 성 리타께서 뭐라도 사 먹으라고 주신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날을 “아주 특별한 축제의 날”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분증도 없이 떠나왔기 때문에 새로 발급받기 위해 알레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알레포에서 한 성당을 찾아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지만 아직 16살밖에 안 된 미성년자여서 홀로 결정할 수 없으니 공부 계속하고 22살이 되면 돌아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차역에서 다니엘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아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고문관들은 다니엘의 옷을 벗기고는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예수한테 살라달라고 해라!”라며 쇠막대기로 때리고 벽에 밀쳤습니다.

다니엘은 12일간 고문을 당하고 작은 독방에 갇혀서 제대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잠들려고 하면 더 맞았습니다. **“이 모든 걸 겪으면서도 제 믿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살려 주실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침묵 속에 기도했고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인 것을 나중에 성경을 읽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12일의 고문 끝에 다마스쿠스 감옥으로 송환되었는데 시리아에서 가장 위험하기로 악명높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갇히면 보통은 살아서 나가지 못합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봐야죠.” 남자 다섯 명이 달려들어 다니엘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벽에 밀어 얼굴을 부딪히는 바람에 이빨이 다 부러지고 코랑 다른 뼈도 부러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한테 지금 살려 달라고 해봐라”라며 다니엘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18일간 이 모진 괴롭힘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미소를

지으며 “사실 지금 제 이빨은 다 의치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루는 꿈에서 사도 바오로가 나타나 “내일 이 시간쯤 너는 이 끔찍한 곳을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날 정말로 기적같이 교도관이 오더니 아무런 설명 없이 “네 물건을 챙겨서 나가라.”라고 말하고는 그를 풀어줬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왜 풀려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레포에서 한 번 붙잡힌 것이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해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끔찍한 감옥에서 나온 다니엘은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다니엘은 몇 년간 다마스쿠스에서 평화롭게 살며 그리스도교 신앙을 배우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내전이 발발했고 18살이 된 다니엘은 징집영장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며 총 한 번 들지 않고 살상을 거부하는 바람에 다니엘은 다시 옥에 갇혔습니다. 군은 그의 의지를 꺾고자 세 차례 고문하고 한 달 동안 수감시켰으나

다니엘은 풀려나서도 총을 들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총기 대신 취사병이 되어 부엌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2016년 가을, 22세가 된 다니엘은 알레포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물둘이 되면 찾아오던 사제가 세례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전 때문에 사제들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슬람교도에게 세례를 주었다간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다니엘은 알레포 교구장의 특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길고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걸은 다니엘은 2016년 9월 21일 마침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성리타의 꿈을 쫓아 지 8년 만입니다.

세례를 받고나서 안전의 위협을 느낀 다니엘은 끝내 시리아를 떠나야 했지만, 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히 어려웠을 때 도움을 준 수도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분께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수녀님들과 수사님들이요. 이제는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차례입니다.”**

ACN이 만난 얼굴들



자헬레대교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난민 가족



난민 캠프의 시리아 어린이



자헬레대교구에서 난민을 돕는 조르지오



베이루트 외곽에서 성 안토니에 시약소를 운영하는 착한목자수녀회의 조제트 수녀



취재진과 함께 축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

마즈드의 이야기

The Story of Majd

시리아의 28세 청년 마즈드 알 자후은 지난해 서울대교구의 DMZ 국제 평화 순례인 '평화의 바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마즈드는 ACN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자원 봉사자 중 한 명입니다. ACN은 가톨릭 미디어에 관련 기사를 내며 한국 청년들에게 전쟁 지역의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즈드는 원래 치과의사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부모님을 따라 그곳에서 병원을 개업하려고 했지만 내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마즈드와 그녀의 오빠는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 지대인 '그리스도인 계곡'에 있는 마을 마르마리타로 가서 그리스 가톨릭 성 베드로 성당에서 자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마스쿠스, 홈스, 알레포 등 시리아 전역에서 실향민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즈드와 동료 봉사자들은 매일 ACN이 이곳의 난민 가정에게 지원한 구호물자를 배급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ACN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첫째는 난민들의 주거비이며 둘째는 병원 치료비와 의약품 지원입니다. 실향민들은 새로 정착한 마을에서 월세를 내느라 가진 재산을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해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계곡에는 공립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치료를 받는 것은 물론 약마저 귀합니다. ACN은 이

지역으로 6개월마다 280,000유로(약 3억 6천만 원)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즈드는 마르마리타로 오기 전 고향 홈스에서 네덜란드 출신 예수회 사제 프란츠 판 데어 룩트 신부와 함께 청년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판 데어 룩트 신부는 시리아에서 50년 동안 신앙 공동체를 지원하고 가난하거나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해 일하며 특히 그리스도인과 이슬람교도 간의 평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는 마즈드에게 아버지와의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즈드가 치과 일을 접고 자원 봉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프란츠 신부님이 제업지역을 탈출하시길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인 계곡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신부님께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판 데어 룩트 신부는 폭탄이 떨어지고 도시가 점령당한 상황에서도 홈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의 과격분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마즈드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계곡도 늘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체 30개 마을 중에서 유일한 이슬람 주거지인 칼라트 알후스에 크라데 슈발리에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역사적 보물이자 세계적인 관광지였는데, 레바논에서 살라프파를 비롯한 이슬람 급진파가 30km 떨어진 국경을 건너

와 이 크라데 슈발리에와 마을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정부군에 붙잡힌 병사와 맞교환하기 위해 성당을 침입해 본당 사제인 조지 마마리 신부를 납치했습니다. 고의로 젊고 무고한 주민들을 공격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마즈드의 친구들도 이때 살해당했습니다. 마을과 요새는 시리아 군의 전투 끝에 탈환에 성공했지만 피해는 남았습니다.

마즈드는 현재 레바논의 대학교에서 '비폭력과 인권'이라는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베이루트로 가 집중 교육을 받고 다른 때에는 그리스도인 계곡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사실 내전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치대에 입학하고 전공의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시간이 좀처럼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특히 생명을 위협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죠. 저는 치과의사가 아니라 제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 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저로 인해 누군가 웃는 것을 보면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ACN은 마즈드와 동료 자원 봉사자들이 그리스도인 계곡에 있는 실향민들의 미소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한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프란츠 판 데어 룩트 신부





다르위시 대주교의 천사들

자흘레는 레바논에서 수도 베이루트와 트리폴리 다음으로 큰 도시로, 베이루트에서 동쪽으로 55km 떨어져 있으며 인구는 12만 명인데 대부분이 멜키타 그리스 가톨릭 신자입니다. 베이루트 대교구장 이삼 존 다르위시 대주교를 만나 ACN이 지원 중인 사업을 살펴보고 시리아 난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중동에서 가장 큰 가톨릭 도시로 알려져 있는 자흘레로 난민들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약 900가구가 찾아왔는데 그리스도인이 기존의 난민 캠프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던 까닭에 아예 시리아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의 눈 앞에서 여자들은 성폭행당하고 아이들은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짓을 저지른 장본인들이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난민 캠프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흘레 대교구의 기금 모금과 사업을 담당해 온 사나의 증언입니다. 사나는 5년 전부터 다르위시 대주교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식량과 잘 곳 정도를 마련했는데, 가진 것을 조금 나눌 수준이죠.”**

레바논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

은 수의 난민을 수용한 나라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지난 50년간 레바논에서 지내왔으며 이제는 인구 440만 명의 국가가 150만 명이 넘는 시리아·이라크 난민들과 함께 살게 되어 모두에게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레바논은 시리아 난민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이제는 경제 위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고 실업률까지 높아졌습니다. 국제 기관이나 비정부기구는 등록된 시리아 난민만 도와주기 때문에 이미 약하고 가난했던 레바논의 일부 국민들에게서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시리아 난민을 도와주는 만큼 레바논 공동체를 도와줄 수 밖에 없다.”**라고 사나는 말합니다.

자흘레에서는 자흘레 대교구만이 소형 아파트를 제공하며 그리스도인 난민을 돕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모든 것이 종교에 따라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신자를 도와주고 카타르와 사우디 아라비아는 수니파 신자를 돕고 있습니다. 자흘레 인근에는 50개가 넘는 난민 캠프가 있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니세프나 TV에 나오는 다른 단체들은 무슬림만 돕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민 캠프로 인해 치안도 불안해

졌습니다. **“어떤 이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난민 캠프에는 보통 여성과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가족들의 가장이 다에시(IS)와 한편인지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다에시라면 그 사상이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겠지요.”**

사나는 “중동의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공동체 사이를 이어주고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며 **“이처럼 평화의 힘을 주는 그리스도인 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중동을 영원히 떠나버리면 큰 충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다른 비(非)극단주의 이슬람교도도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다르위시 대주교는 한 중도주의 이슬람 성직자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중동을 떠나면 우리는 어둠 속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자흘레 대교구장 이삼 존 다르위시 대주교

사나와 레이첼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나와 레이첼



ACN은 다르위시 대주교와 봉사자들이 그리스도인 난민 가정에 생필품, 월세 보조금, 이불 및 침대 매트리스, 기저귀, 식량, 의약품 등을 제공하고 영적으로 보살피는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르위시 대주교는 난민들이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매일 천 명분의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 ‘자비로운 요한의 집’을 열었으며 시리아 난민을 고용해 일자리도 제공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따뜻한 밥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레바논인도 찾아오기 때문에 레바논 사회에 적응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흐레대교구는 병원도 운영하는데 이 지역의 유일한 가톨릭 병원입니다. **“현재 병원 환자의 35%가 시리아 난민입니다. 난민캠프에 등록된 난민은 유엔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우리 병원에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위시 대주교의 두 천사, 사나와 레이첼은 자흐레대교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입니다. ACN과 가톨릭평화신문의 취재진은 이틀간 이 두 명과 동행했습니다. 취재진은 교구의 다양한 시설을 방문하고 여러 그리스도인 난민을 만난 후 레이첼과 함께 베카 자흐레의 성모상을 찾아갔습니다. 1956년 높은 탑 위에 세워진 10m 높이의 청동 성모상 앞에서 베카 계곡과 자흐레 도심을 내려다보며 레이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레이첼은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30대인 레이첼은 아직 미혼인데 거의 성소처럼 매진하고 있는 교구 일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기

회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저에게는 1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라며 웃으며 말합니다. 난민들을 만날 때마다 가족의 수는 늘어납니다.

레이첼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시리아 군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당시 레이첼의 가족은 베카 자흐레의 성모상 가까이 살았습니다. 한 저격수가 이 성모상 앞에 잠복하여 움직이는 건 무엇이든지 저격했고 레이첼의 집에도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레이첼은 할머니와 함께 이틀동안 옷장 안에 숨어야 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기 이전에 부유했던 레이첼 가족은 집과 직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마치 시리아 난민들처럼 말입니다. 레이첼은 난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91일 동안 이 도시를 장악하고 폭탄을 터뜨린 시리아인들이 이제는 이곳으로 피난을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며 또 그리스도교의 특별한 점이 아닐까요?”

레이첼은 어쩌면 원수일지도 모를 시리아 난민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며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내면화시켜 실천하고 있습니다. 레이첼은 “제 사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라며 **“사람은 살면서 먹을 것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 힘든 상황에서 함께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난민들을 돕게 하시려는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레이첼에게 한국에 계신 분들께 전할 말이 있다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군가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내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레이첼은 기도나 후원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역할은 여기서 난민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그들의 고통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보고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명은 한국의 형제자매들에게 이 모든 걸 알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ACN이 자흐레대교구의 난민 구호 사업을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다르위시 대주교와 그의 든든한 지원군, 사나와 레이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베카 자흐레의 성모상과 묵주



바스만 가족과 함께

바스만 가족은 자흐레대교구가 마련한 임시 거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스만과 아내 라니아 그리고 그들의 세 자녀, 파디, 미라, 마즈드는 자신들이 겪은 끔찍한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바스만 가족은 시리아 흄스 근처의 마을 알 쿠사이르 출신으로,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고 정부군과 반군 간의 분쟁이 일어나자 2012년 자흐레로 피난 왔습니다. 처음 1년은 고향에서 폭탄 투하, 납치, 협박 속에서 전기와 수도도 없이 버텼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봉쇄된 곳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물가는 10배로 뛰었습니다. 치안도 엉망이었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장을 볼 수 있도록 2시간 정도 사격 중지가 이뤄진 적도 있습니다.”**

시작은 매주 금요일마다 한 시간 정도 진행된 시리아 정부 반대 시위였습니다. 시위대는 곧 그리스도인도 동참하라며 강요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그리스도인의 집에 X자 표시를 하며 “만약 다음에도 시위에 나오지 않는다면 집을 불태우거나 너희 식구를 납치하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시위자는 어느 누가 군인이라고 하면 그의 가족을 납치해서 시위에 동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바스만의 동서는 정부군의 장교였는데 반군에게 토막 살인을 당했습니다. 바스만의 사촌도 마찬가지로 정부군 소속 하사였는데 2011년 시리아 정부 반대 시위 초기에 납치되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행방 불명 상태입니다. 시위자는 **“알라위트족을 처형하고 그리스도인은 베이루트로 보내야 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시위 운동은 곧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유 군대’라는 이름의 반군이 시리아군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자유 군대는 곧 과격주의로 변질되었고 그중에는 아프가니스탄인과 파키스탄인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스만은 2시간의 휴전 중에 6살 난 아들을 두고 혼자 일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중지된지 10분만에 다시 폭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스만은 저격수와 불길을 뚫고 아는 이들의 시체를 넘어 달려서 아들을 구했습니다. 한 달 후 반군이 마을을 점령하여 협박과 처형, 납치가 줄을 이었습니다. 내전 첫 해에만 바스만의 친인척 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바스만 가족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레바논으로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스만은 자흐레에서 이미 도착해 있던 처가댁과 함께 여섯 가족이 두 달간 방 두

개짜리 아파트에서 생활했습니다. 총 30명의 식구가 순서를 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돈도 직업도 존엄성도 희망도 모두 사라질 무렵 가톨릭 교회가 난민을 돕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스만 가족은 곧 식량 바구니와 위생용품, 담요, 연료, 기저귀, 월세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가톨릭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았고 세 자녀도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리아에서 바스만은 부동산업자로 일하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현재 그는 일정한 직업은 없지만 일손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나가며 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온 지 6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새 옷 한 벌도 사 입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르위시 대주교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바스만은 시리아가 평화를 되찾는다면 당연히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크나큰 상처를 받은 아내와 아이들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스만의 고향은 80%가 파괴되었고 그의 본당인 성 엘리야 성당도 무너졌습니다. **“(슬프긴 하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